

“청정한 소리 만나면 목탁 아니죠”

산문박의 禪

목탁장인 김종성 씨

지난밤 가야산 너머에서 한껏 휴식을 취했던 한겨울 태양이 기지개를 펴듯 평한 햇살을 선사하는 시간, 청량(淸亮)한 독경소리가 하개금 마음을 뒤덮는다.

관자재보살 행심반야바라밀다시 조건온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이십여 가구가 웅기종기 모여 있고 국기 게양대가 교사(敎舍)보다 더 크게 보이는 분교 하나 그리고 사원(始原)을 알 길 없는 정다운 개울물. 이곳은 풍경이 반야심경과 어우러져 시골마을 전체를 흡사 고찰(古刹)처럼 느껴지게 한다.

성철스님 말씀 되새겨

김종성(金鍾成·49)씨는 바로 그 '고찰'에서 목탁을 쥐고 다듬는 일을

리를 고집한다. 길보기에는 볼 품 없어 도 표면이 갈라지지 않고 변동이 없어 대물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3년동안 땀방울에 묻어둔 삼나무 뿌리를 소금물에 적셔 가마솥에 찌는 것으로 작업은 시작된다. 충분히 쪄 나무를 손도끼와 피목 등으로 동글게 만들고 골칼로 물고기의 아가미와 눈(구멍), 꼬리(손잡이)를 형상화한다. 이쯤에서 1차 소리점검이 있게 되는데 둔탁한 소리가 나면 영락없이 폐기처분을 감수해야 한다. 제구실을 할 수 있는 목탁은 구토(빨간 흙)를 세 번, 들기름을 일곱 번 바르고 난 뒤에 마침내 고고(嗚嗚)의 소리를 울리게 되는 것이다. 제대로 된 목탁이라면 그 청아한 소리가 십리밖까지 닿는다고 한다.

“목탁만들기에 손을 댄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내겐 좋은 온갖 정성



“삼독 닳아 없어질 때까지 법구 만들자” 30년 외길

30년이 넘게 해오고 있다. 사람들은 세월의 무상함을 쉽게 이야기 하지만 30년이란 단란치 않은 시간이다. 목탁 행상을 하던 선친(先親)의 뒤를 이어 직접 제작기술을 익히기 시작한 것이 17세. 그때부터 그가 만들어낸 목탁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 자신도 모른다. 다만 전국의 알만한 사찰에는 자신의 손때 묻은 작품이 대개 있을 거라는 추측 뿐.

무엇이든 강그리 기계의 편리함과 신속성에 자리를 내어주는 세상 흐름에서 목탁은 예외이다. 목탁은 밥솥으로 눈을 감지 않고 살아가는 물고기를 보고 수행자로 하여금 자기말고 수행 정진하라는 뜻으로 만든 목어(木魚)가 변형화된 법구(法具)이다. 그런 뜻을 간직한 목탁이기에 쉽게 기계의 유혹에 넘어갈 일이 아니다.

“목탁은 청정한 소리로서 수행승려나 민중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쓰이는 도구입니다. 청정한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이미 그것은 목탁이 아니죠.”

목탁은 깨달음을 향한 구도자의 수행만들이나 탄생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목탁을 만드는 데는 대추나무, 박달나무, 은행나무, 꾀족 등이 쓰이지만 김종성씨는 백년이상된 삼나무 밑부

“작업열중하면 마음 절로 고요 내집이 사찰처럼 느껴지니 재산이 무슨 필요있겠어요”

을 기울여 만든 목탁 하나를 해안사 백련암에 주석하시던 성철스님께 가지고 갔어요. 목탁을 두들겨 보시던 성철스님이 '이건 목탁이 아니고 그냥 나무일뿐'이라며 조용히 물리치시더군요. 그때 한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단순한 잔재주로만 목탁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종성씨가 사는 하개금 마을에 전기가 들어온 것은 불과 10년전인 85년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밤이면 호롱불 밑에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 여러 번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잘려 선혈(鮮血)이 목탁 전체에 퍼졌을 때에는 자신의 가난과 무학(無學)을 원망하기도 했다. 부인은 돈벌이도 되지않는 일일랑 당장 걸어 치우자고 역정을 내 그를 허탈에 빠지

게도 했다. 그런 세월속에서도 김씨가 목탁을 외면하지 못한 이유는 너무도 간단하다.

셋째아들에 기술전수

“작업에 열중하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꼭 내집이 사찰처럼 느껴져 우리집에 좋은 목탁하나 남겨 놓자는 생각이 들더군요.”

김종성씨는 지금도 독탁제작으로 얻는 수입과 땅 25경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다. 33대째 살아오는 고향마을에서 그만한 땅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사람들이 쉽게 믿으려 들지 않는다는 김씨는 “내집이 바로 사찰인데 무어그리 재산이 필요하겠어요”라며 천진스런 웃음을 짓는다.

요즘은 셋째아들이 자신의 일을 배우겠다고 나서 기술전수에 여념이 없다. 여느 장인들처럼 제자를 거느릴 수 없는 처지에 아들이 목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서니 한편으로는 대견스럽기도 하지만 걱정이 앞서서 걱정도 사실이다. 철저한 수작업으로 한달에 대여섯 개밖에 만들지 못하는 목탁이지만 수요가 그다지 많지않아 생활은 항상 쏠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목탁은 부품이 고정되거나 배터리가 떨어지면 제 기능을 잃어버리는 현대의 기기(利器)와는 그 근본이 다릅니다. 웬만큼 해서는 깨지지 않고 나무가 닳아 없어질 때까지 고귀한 소리를 낼 수 없을까요.”

‘닳아 없어짐’

수행자는 실체가 없는 마음을 알고 그것을 닳는 일에 열중한다. 온갖 업(業)과 탐진치 삼독(三毒)으로 겹겹이 쌓인 마음자리를 닳아 없어질 때까지 쥐고 다듬는 일에 매달린다. 김종성씨에게 있어 ‘닳아 없어짐’은 ‘깨움’의 과정과도 맞닿아 있다. 아침이면 항상 집밖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독경 소리가 그가 만드는 목탁 나무 권선사에 스미게끔 하는 까닭이다.

거창=박병근 기사

절짓는 대신 풀 한 포기 꽃은 뜻

부처님 일화에 대해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어느때 대중과 더불어 길을 가시다가 한 곳에 이르러 여기가 명당이니 이곳에 큰 사찰을 지으면 좋겠다 하셨습니까. 제석천왕이 그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풀 한 포기 땅에 꽃고 다 지어졌습니다 라고 하니 부처님께서 빙그레 웃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가르침인지요. (이종환·서울 서초구 집원동)

부처님께서 여가에 절을 짓는게 좋겠다고 하신 것이나 제석천왕이 풀한포기 꽃은 것이나 다 한자리입니다. 일체제물의 마음, 일체중생의 마음이 한데 합쳐져서 풀 한포기 딱 꽃았으니 그대로 대가림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 우습지 않습니까? 자기가 말하고 자기가 짓고 했으니 말입니다.

말이 낫으니 말입니다만 혼자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과 하나를 먹는 것도 그렇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도 혼자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천백억 화신으로 나루는 것이지요. 또 내 안에는 얼마나 많은 중생이 우물거리고 있습니까? 그러니 어떤 때에 나 혼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삼독심이 닳은 것이지요. 그리고 제 용광로가 저를 돌지 어느 누가 돌겠습니까? 망명을 여의면 그대로 부처다. 진성은 본래로 밝아 여여하다는 말을 믿으신다면 무조건이 곧 무조건이 아닐줄 아니겠습니까. 유념하십시오.

찬불가 부를때 눈을 쏟아져...

법회에 참석해서 찬불가를 부르면 중에 울라 눈물이 쏟아져 견줄 수 없었습니다. 슬픈 감정이 솟구친 것도 아닌데 법회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런지 제 자신도 모릅니다. (진형자·광주 북구 두암동)

업장이 녹나라고 그립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참회할 때 눈물을 흘리지요. 그와 같습니다.

봄이 오면 얼었던 물이 녹아 풀을 흐르듯이 마음에 봄이 오니까 얼음이 녹아내리는 것이지요. 그런데 슬픈 생각을 했던 것도 아니고 딱히 참회하는 마음도 아니었는데 왜 어느 순간에 눈물이 흐르느냐? 그걸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의 나는 불렀다고 해도 과거부터 수억겁 내려온 그 나는 꽃고 꽃기면서 살아온 눈물겨운 사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게에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과거의 수량

지 상 상 담

길은 묻는 이에 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법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 보내주시고요.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온선원 대령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중구로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그토록 광대무변한줄 잘 아셔야 합니다.

삼독을 멀리할 방법은

일찍이 한양선사께서 ‘탐진치 삼독만 멀리하면 성불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많은 지리에서 부처가 된다’고 하셨답니다. 달마 조사께서도 ‘진성은 조금도 어둠이 남아 항상 밝고 지혜하면만 중생이 스스로 생사고를 짓고 자기가 받는다. 마음가운데 망념 여의면 본래가 부처다’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와같이 될 수 있는지 가르침 바랍니다. (최예문·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삼독이 어디 따로 있는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있지요. 지금의 내 마음속은 과거·현재·미래의 교차로에 있구요.

그 삼독심이 무명을 벗지 못하면 그대로 삼독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삼독심을 여의려면 그대로 놓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잡사를 용광로에 쏟아 넣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쏟아 넣으라니까 넣는다고는 하는데 요건 요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저건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조건을 붙인단 말입니다. 말하자면 탐·진·치, 삼독에 이만까지 보태서 넣으니 그건 용광로에 넣으니까 아니지요. 무조건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되어 나오든 일단 용광로에 쏟아 넣으면 그만입니다. 무엇이 나올지는 지켜보면 알니다. 그게 관하는 법이지요. 그래야 삼독이 녹고 무명이 벗겨집니다. 무명 벗겨지면 그대로 한마음 여여하여 자재로써 밖으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무조건 놓을 수 없다고 반문합니다. 무조건이 아니면 그건 벌써

은 의식들이 한 순간에 참회의 계기를 만나 녹는 것입니다.

법회때의 신심 금방 사그러져

법회에 참석해서 법문듣고 나면 마음이 기쁘고 한동안은 가르침대로 살려고 노력도 합니다. 그러다가도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전처럼 되어버립니다. 다시 스님 말씀 떠올려 보고 법회에 참석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보려고 하지만 잘 안됩니다. 신심이 약한 탓이겠지요. (한동우·부천시 원미구 삼곡동)

우리가 사용하는 녹음기나 라디오도 악을 끼워서 작동시키는 게 있고 전기코드를 꽂아서 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유하자면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악을 끼워 쓰는 것과 같고 오래 수행하신 분들은 코드 꽂아서 쓰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악이 떨어지면 갈아끼워야 쓸 수 있듯이 가르침을 따르는 힘이 약해질 때면 도량을 다시 찾고 법문도 듣고 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이 마음도리를 잘 알아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우주 전체가 다 가설이 되어있다는 것을 알게되면 그때는 자동으로 마음껏 전력을 끌어쓰게 될테니가 안외도 온 것이고 외도 안온 것이고 그냥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요.

학교 다니며 공부할 때도 제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을 때까지는 교박교박 학교엘 가야 하고 수업도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괜히 믿음이 약한가보다, 근기가 낡았 못한가보다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묵묵히 열심히 하세요.

경고문

◎ 최근 종단 개혁을 저지하고자 준동하는 일부 해종세력에게 경고함 ◎

지난 1994년 종단 개혁 불사에 동참했던 우리 불교 단체들은 최근 종단 개혁을 저지하고자 준동하는 일부 해종세력들의 행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경고하는 바이다.

첫째, 조기현씨는 전국신도회 재건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상무대 비자금' 사건과 과거 전국신도회를 정치와 유착시킴으로서 2천만 불교 신도의 권위를 실추시킨 데 대해 깊이 참회하고 자숙하라.

최근 조기현씨는 2월 9일 전국신도회 대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조직 재건을 하겠다는 지상공고를 하였다. 조기현씨로 말하면 과거 상무대 이전 공사 대금중 80억 원을 동화사 대불 공사 시주라는 명목으로 돈세탁을 하여 부정한 자금을 정치권에 유입케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인물이며, 최근에도 검찰 조사 내용이 지상에 보도된 바 있다. 또한 과거 신도회장으로 활동할 때도 정치권과 결탁하여 개인적인 정치적 욕심을 추구함에만 노력하여 이전만 불교 신도들의 권위를 실추시킨 장본인이다.

이러한 매불 부정 비리자가 과거의 잘못을 참회하며 자숙하지 아니하고 총선 등 정치계절을 맞아 또다시 불교권을 정치권의 흥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자 전국신도회 부활을 기도하는 행위는 이전만 불자의 이름으로 규탄받아 마땅한 것이다.

더욱이 종단은 지금 개정된 중헌 중범에 따라 여법한 중앙신도회를 결성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국의 불자들은 이에 수회동참하고 있다는 점을 천명하는 바이다.

둘째, 황한수(과거 불명: 진경)씨 등 해종 세력은 종단 생활 중에 저질렀던 각종 잘못을 참회하고, 종단 문제를 사회 법정에 소송 제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황한수씨 등은 과거 종단에 몸담고 있던 시절에도 각종 비리와 부정에 연루되어 사법처리를 받는 등 종단의 큰 암적 존재로 치부되고 있던 중 종단 개혁 기간에 거듭된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가 승적을 박탈당한 대표적인 해종행위자이다. 이러한 자가 최근에도 승적박탈자 및 나이 어린 과거 종단의 권속들을 부추겨서 종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음은 천인공노할 파회합적 매불 행위로서 전 불자의 이름으로 엄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욱이 종단은 새로운 중헌 중범을 통해 '소청심사위원회', '초심·재심 호계원', '법규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 각종 자체 심의 의결기구가 있어서 종단의 문제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종단의 문제를 사회 법정에 끌어내어 종교 문제를 사법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심지어는 정치권

의 흥정 대상으로까지 갈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함은 불교 자주를 천명하는 개혁 종단으로서의 목과할 수 없는 해종행위인 것이다.

셋째, 종단 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우리 14개 불교단체는 조기현, 황한수씨 등이 이상과 같은 해종 매불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만일 기왕의 일을 참회하여 자숙하지 아니하고 해종 행위를 계속할 때에는 종단의 이름으로 응징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불기 2540(1996)년 2월 7일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선우도량
- 전국승가대학 학인연합 /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 동국대 석림회 / 한국제가불자연합
- 한국불교재가회의 / 전국불교운동연합
- 대한불교청년회 / 대불련총동맹회 / 불교시민단체협의회
-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 한국여성불교연합회